

“유권자의 감성을 자극하라”

6·2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인터넷 블로그 등을 이용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유권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 천안함 사태 등의 영향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이 실종된데다 시민들의 무관심이 겹쳐지면서 톱톡 튀는 감성적 선거전략으로 유권자들에게 접근하겠다는 후보자들의 판단 때문이다.

광주시장에 출마한 A후보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뚱둥이’ 아들(10)의 편지를 올렸다.

‘아빠에게, 요즘 선거운동 하는 거 힘드시죠. 하지만, 좀 지나면 선거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한 것도 사라질 거예요. 그때까지만 힘내세요. 엄마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광주시장 당선되길 바래요. 그럼 아빠 화이팅.’

맞춤법은 일부 틀렸지만, 잠도 못하고 선거운동에 바쁜 모습에 뭔가 응원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담겼다.

블로그 방문자들은 “아마 어려도 아빠가 선거한다고 바쁜 모습에 뭔가 응원을 해야겠다는 마음먹었나 봅니다. 힘내세요.”라고 응원했다.

선택  6·2 지방선거 D-4

후보자들 인터넷 선거운동 활발

선거일지 등 구구절절 사연 공개

30대 젊은 후보자와 여성 후보자들의 톱톡 튀는 선거일지도 눈길을 끈다.

광주시 한 기초의원에 출마한 B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매일 선거일지를 올려 젊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선거일지는 기존 일정 위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며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블로그 방문자들에게 심심치 않은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B후보는 ‘새벽 경로당과 부녀회 야유회 배움을 나간 자리에 팽팡한 승부와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지역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나타나 자리가 불편했다. 양쪽에 흐르는 묘한 냉기…아니 그 이상이 흐르더라’라고 치열한 구청장 선거의 분위기를 글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주부인 여성 후보들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낀 5월에 선거운동 때문에 미처 챙겨주지 못한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죄스럽다’라고 글도 남겨 블로그를 찾는 방문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주부인 여성 후보들은 자신들의 블로그에 요리 조리법과 천연제품 만드는 방법 등 주부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여성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C후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친근감 표시에 더욱 호감을 보여, 이에 착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일지 외에도 가족과의 일상, 우리 동네 이야기 등을 담아 유권자와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 관련 이색 홈페이지도 선거운동에 한몫을 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개설한 후보 선택 도우미 검색사이트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데 기여하고 있다. 경실련은 홈페이지에 ‘나와 통하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찾아라’란 배너를 설치했다. 네티즌이 배너를 클릭, 지역을 선택한 후 해당지역 이슈 관련 문항(무상급식, 기초의원 무 정당 공천 등)에 답변하면 성향과 맞는 후보자를 제시해 주고 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노모(43)씨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선택 도우미 덕을 톱톡히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직까지 선거공보물을 받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동네 후보들은 누구인지, 그들의 신상정보와 각종 공약 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다”며 만족해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아이들아~ 아침밥 먹자”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재고량 증가로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중순)와 광주 YWCA(회장 이옥식)가 28일 조선포 부속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벌이며 등교 학생에게 주먹밥을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南도 北도 편 안들겠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 “각국 반응 중시 공정하게 판단”

한·중 양자 회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28일 “중국 정부는 국제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면서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말한 뒤 “중국은 그 결과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이통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원 총리는 또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위도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아울러 “천안함 침몰이러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첫 한·중 정상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우리 정부가 공정한 대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를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고 원 총리는 “한국 정부가 이 사태를 적정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며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 발표시 사용한 북한 어뢰의 수출용 카탈로그와 어뢰모델 등의 사진자료까지 동원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에 원 총리는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의 이번 회담은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첫 한·중 정상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우리 정부가 공정한 대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를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

문이다. 이날 두 정상 간의 회담은 원래 오후 2시45분 시작해 3시15분까지 30분 가량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4시22분까지 1시간40분 가까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일본·중국의 3국 정상 회담이 29~30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다. 지난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처음 별도의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래 세 번째 회의로,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중 정상은 회의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소재와 향후 대북 제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추진을 위한 중국의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대북 제재에 여전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중국이 태도를 전환할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북풍 맞선 남풍 일으켜 달라”

강운태 민주 광주시장 후보 호소문

민주당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는 28일 ‘광주 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여당의 북풍에 맞선 남풍을 일으켜 달라”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강 후보는 “광주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때아닌 북풍이 불어닥쳐 온 나라를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며 “이

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구멍 뚫린 안보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천안함 침몰 사건을 정권안보와 지방선거에 철저히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승리에 눈이 어두워 교묘하게 북풍을 일으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자랑스런 아들들을 침묵



의 바다 속으로 빠뜨린 국방부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후보는 “민주주의가 고통을 당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광주는 불의에 맞서 분연히 일어섰다”며 “이명박 정권의 북풍에 맞서 민주·인권·평화도시인 광주에서부터 평화를 수호하는 남풍을 불러 일으켜 달라”고 호소했다.

또 “광주가 ‘남풍의 진원지’가 되고

그 뜨거운 열기가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거슬러 올라가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光州日報과 함께
행복한 주말을

시간강사 자살 수사 ▶3면

맞벌이 부부 내집마련 설계 ▶4면

차 연비 개선 10계명 ▶5면

Books ▶8·9면

독자와 함께 ▶13면

이동국을 어찌할까? ▶14면

전라남도 교육감 후보

김경택

동아대학교 총장 교육학박사

민주형 교육감

무상급식·전날검열학 놀이기

교육감! 김경택

전라남도교육감후보

첫번째 김경택을 꼭 찍어주세요

선생님 양육세요!
학부모님 양육세요!

역수선 재교육청 설치!
교육청 끝으로 교육비지 출현!

선거일지

날짜	선거일지
5월 29일	선거일
5월 30일	선거일
5월 31일	선거일
6월 1일	선거일
6월 2일	선거일
6월 3일	선거일
6월 4일	선거일
6월 5일	선거일
6월 6일	선거일
6월 7일	선거일
6월 8일	선거일
6월 9일	선거일
6월 10일	선거일
6월 11일	선거일
6월 12일	선거일
6월 13일	선거일
6월 14일	선거일
6월 15일	선거일
6월 16일	선거일
6월 17일	선거일
6월 18일	선거일
6월 19일	선거일
6월 20일	선거일
6월 21일	선거일
6월 22일	선거일
6월 23일	선거일
6월 24일	선거일
6월 25일	선거일
6월 26일	선거일
6월 27일	선거일
6월 28일	선거일
6월 29일	선거일
6월 30일	선거일
6월 31일	선거일

선거일지

선거일지